

# 망명 이후 신채호 소설의 인물 형상 연구

- 근대에서 탈근대 이행(移行)과 관련하여 -

김현주\*

|| 차례 ||

1. 머리말
2. 비(非)영웅과 민중영웅의 충돌
3. 괴물의 탄생과 주체의 이중화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근대에서 탈근대 이행(移行)과 관련하여 망명 이후 신채호 소설의 인물 형상화를 살펴보았다. 강인한 민족영웅이 형상화되었던 역사전기소설들과 달리 1910년대 소설에서는 눈, 귀, 코 등의 신체적 결함과 폭력, 눈물, 자기 과신 등으로 점철된 정신적 결핍의 비(非)영웅과 새로운 주체화를 모색하는 자각한 민중들이 형상화되고 있다. 이들의 반목과 갈등은 근대에 대한 회의와 반목, 계몽지식인들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주체화 모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는 양성(兩性)의 용, '同生異性'인 미리와 드래곤이라는 대립적인 괴물을 통해 주체의 이중화를 실현한다. 두 괴물은 我와 非我, 선·악과 같은 이분법적 체계로 환원되지 않고 그 사이를 넘나드는 이중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주체의 이중화는 어느 한 인물이 절대적인 선을 재현할 수는 없다는, 재현에 대한 회의와 거부 전략으로 심화된다. 동시에 미리와 드래곤은 동양과 서양, 여성과 남성이라는, 세계주의와 음양의 조화로우움을 회구하는 상징적 형상이 되고 있다. 이 둘의 파괴성과 전복성은 조화와 교류를 통해 합일에 도달하려는 혁명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탈근대적 문학적 모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근대에 대한 신채호의 고민과 문학적 성찰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 비(非)영웅, 민중영웅, 괴물, 주체의 이중화, 근대, 탈근대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1. 머리말

단재 신채호(1880~1936) 문학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로 역사전기소설에서 <꿈하늘>까지는 강력한 민족주의가 표출되다가 <용과 용의 대격전>(1928)에서 아나키즘 수용이라는 사상적 굴절로 인해 새로운 문학적 모색이 비약적으로 시도됐으며, 이는 민족주의의 심화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신채호 문학을 사상에 가두거나 역사전기소설과 <용과 용의 대격전> 사이에 있는 1910년대 작품들을 간과하고서는 신채호 문학의 본령을 구명해 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 신채호는 문·사·철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라는 점에서 이미 탈근대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측면만으로 그의 문학을 규정할 수가 없다. 특히 인물 형상에서 식민지라는 현실과 민족주의적 입장을 넘어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작가의 주제의식이 근대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 자각과 비판을 통해 탈근대적 문제의식에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신채호는 <을지문덕>, <수군제일위인 이순신>, <동국거걸 최도통>에서 강인한 민족 영웅들을 형상화하면서 근대국민국가 확립에 대한 열망을 그려낸 바 있다.<sup>1)</sup> 이들 역사전기 소설들은 그 시작과 끝이 분명한 논설체로 계몽지식인의 뚜렷한 신념과 결연한 어조가 두드러졌던 반면,<sup>2)</sup> 망명 이

1) 신채호 문학의 근대적 특성을 다룬 주요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오선민, 『20세기 초 역사전기 소설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채진홍, 『신채호 소설에 나타난 근대인관』,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언어문학』제55집, 2005.

최옥산, 『'신국민'만들기와 문학 -신채호와 양계초의 국민성 탐구-』,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제13집, 2004.

하정일, 『급진적 근대기획과 탈식민 문학의 기원 -신채호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2) 역사전기소설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국민국가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통합의 상징

후 쓰여진 1910년 작품들은 대부분 미완성인데다가 주제가 모호하고 인물의 형상화가 서사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완결성도 떨어진다.<sup>3)</sup> 또한 시점 처리가 혼란하고 중층적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 제목과 내용, 인물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근대와 탈근대 사이에 놓인 과도기적 작품들로서 신채호의 논설이나 역사서에 볼 수 없는, 근대에 대한 작가의 고민과 무의식적 심층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작품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세밀한 고찰은 근대 서사기획의 일환으로 창작되었던 역사전기소설과, 이후 탈근대로 나아가는 <용과 용의 대격전> 사이의 문학적 간극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본고는 위의 문제의식들을 바탕으로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이행과 관련, 망명 이후 신채호 소설 작품에 대한 전면적인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sup>4)</sup>

이었다. 이들에 의해 ‘민족은 국가를 표상하는 강력한 남성적 표상으로 떠올랐다.’ 구국의 전쟁 영웅을 숭상하는 일은 ‘곧 잃어버린 한국의 민족성을 찬양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중국의 정치적, 문화적인 영향력을 추방하고자 하는 요구이기도 했다.’ 앙드레 슈미드, 『제국 그 사이의 한국』, 정여울 역, 휴머니스트, 2007, 430면, 178면.

3) 완성 작품: <일이승>, <박상희>, <찰마 코를 내리치다>, <구미화와 오제>/ 미완성 작품: <솜하늘>, <류화전>, <百歲 老僧의 美人談>, <一目大王의 鐵椎>, <리팔>, <○○○ 부원군으로 건자>

4) ‘근대 서사가 지배 담론의 수용 속에서 작품의 처음에서부터 끝까지를 일관된 중심 이야기로 관통하는 방식이라면 탈근대적 서사는 근대적 서사가 훼손한 전근대적 이야기성으로서의 구술성과 더불어 타자성, 다성성 담론을 작품 속에 회복시키며 다중 서사를 채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탈근대적 서사에는 불확정성, 탈정전화, 이중혼합, 대중주의, 재현불가능성, 보편내재성 등의 특성이 내포된다고 할 수 있다.’ 한승욱, 『한국현대소설과 사상』, 집문당, 1995.

나병철은 탈근대성을 근대성과의 접합적 관계로 이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해한다. 이탈과 미결정성의 탈근대의 힘은 근대의 타자로서 근대가 발생하자마자 작용하기 시작했으며 근대의 자기충족적인 동일성을 해체하면서 그 개념을 역동적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나병철,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문예출판사, 1996. 『애국 계몽기의 민족의식과 탈식민주의』,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기전어문학』제12·13집, 2000, 3.

II장에서는 <일목대왕의 철추>(一目大王의 鐵椎), <일이승>(一耳僧), <철마 코를 내리치다>, <백세 노승의 미인담>(百歲 老僧의 美人談)을 대상으로 근대에 대한 회의와 반목을 살펴볼 것이며, III장에서는 <용과 용의 대격전>(龍과 龍의 大激戰)에서 탈근대적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sup>5)</sup>

## 2. 비(非)영웅과 민중영웅의 충돌

역사전기소설에서 강력한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근대국민국가 기획에 나섰다던 신채호는 국치를 예감하고 1910년 4월에 중국으로 망명한다.<sup>6)</sup> 근대 기획의 좌절과 독립운동가들의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점과 행보로 인해 여러 갈등들도 빚어지고 있어서 계몽지식인에 대한 회의도 있었을 것으로

---

국권침탈로 인한 근대국민국가 기획의 좌절은 탈근대적인 문학적 모색을 감행하게 하였다. 근대의 시작과 함께 식민화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당대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 근대와 탈근대에 대한 동시적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채호가 근대를 사유했다면 필연적으로 사회·경제적 근대화에 앞선 이른 시기에 탈근대적 문학적 모색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

5) 가장 최근에 발간된 전집(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 제7권 문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8.)에는 북한에서 출간한 전집(신채호, 『룡과 룡의 대격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과 김병민이 중국에서 출간한 전집(김병민, 『신채호 문학 유고 선집』, 연변대학출판사, 1994.) 모두를 실은 후, 새로 발굴된 작품과 함께 김병민이 출간한 전집을 새활자본으로 뒤에 실고 있다. 새활자본에는 종종 오타가 눈에 띈다. 본고는 <百歲老僧의 美人談>, <一目大王의 鐵椎>, <龍과 룡의 大激戰>은 새활자본을 참고할 것이며, <일이승>, <철마 코를 내리치다>는 김병민 전집에 실리지 않아 새활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전집을 참고할 것이다. 앞으로 작품 인용 시, 『단재신채호전집 제4권 문학』의 면 수만 밝히도록 한다.

최옥산은 북한본과 중국본, 그리고 한국본(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전집』 상·중·하·별집, 형설출판사, 1995.)의 텍스트를 대조·고찰하면서 남북한의 언어 정책, 이념의 이질성 등으로 원전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최옥산, 『문학자 단재 신채호론』,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3, 169~184면.

6) 망명 과정과 중국에서의 활동 등은 『단재신채호전집 제9권 단재론·연보』편 참조.

보인다. 따라서 신채호는 필연적으로 이전과는 구별되는 소설적 모색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망명 이후인 191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소설들은 이전의 역사전기소설들과 상당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역사전기소설에서 전쟁 영웅들의 활약을 장엄하게 그렸던 것과는 달리, 망명 이후 소설에서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구별 없이 그 싸움의 대상이 확대된다. 내, 외부의 경계를 허물며 아국(我國)과 비아국(非我國)간의 전쟁, 아국 내부의 전쟁, 권력 자체, 봉건 지배질서, 인물 간의 갈등, 인물 내부의 자기 갈등 등, 그 갈등과 싸움의 폭이 확장된다. 또한 인물들 역시 전쟁영웅들이 아니라 폭력적인 왕, 왕 되기를 꿈꾸는 자, 승려, 민중영웅 등으로 다양해진다. 이는 망국이라는 현실에 부딪친 신채호가 이상적인 상상의 근대국민국가 기획의 모순들을 직시하고 내·외부적으로 근대에 대한 회의와 반목을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강력한 근대국민국가의 성립이 요원해진 가운데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면서 다양한 성찰과 그만큼의 좌절과 방황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특히 두드러진 점은 구국의 영웅들이 건강한 육체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신성한 인물들로서 승리하는 영웅인데 반해 이후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함을 내재한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비범함을 꿈꾸지만 그 꿈이 좌절되어 실패하는 인물이거나 반(反)영웅적인 인물들로 자기 도착적(倒錯的)인 비(非)영웅들<sup>7)</sup>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영웅들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이 자각한 민중영웅들이다. 이들은 서로 반목과 충돌을 하지만 결국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표연히 사라지며 여운을 남긴다.

7) 본고에서 말하는 비(非)영웅은 반(反)영웅과, 영웅이 되고자 하나 내재적 결핍으로 영웅이 되지 못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일목대왕의 철추>의 주인공 궁예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합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한쪽 눈이 멀었으며, 정신적으로도 자기착각에 빠진 인물이다. <一目大王의 鐵椎>는 이러한 그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길은 탄탄한 큰길 한이뿐이다. 한데 백이 백 말하고 천이 천 말하야 이 세상사람들로 하여금 갈 길을 몰으게 한다.’(594면)며 궁예대왕경을 지어 백성들을 하나로 규율하려 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궁예를 존경하기는커녕, 자신들을 세뇌시키려는 데 반항한다. 궁예는 이에 분노, 관심법으로 사람을 본다며 근거 없이 철추를 휘둘러 백성들을 죽인다. 그의 관심법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유아기적인 자기중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sup>8)</sup>

궁예는 자기만이 백성을 구원할 미리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근원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결합을 내재한 존재로 신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이 ‘이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의적인 법률을 통해 인간을 규율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폭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궁예는 자주의식으로 포장된 궁예대왕경으로 백성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이는 신이 되고자 하는 궁예의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의 발현일 뿐이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의 욕망에 지배당하여 파멸로 치닫는다. 즉 궁예의 외눈박이와 관심법은 자의적으로 현실을 구획 짓는 근대기획자의 폭력적인 시선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sup>9)</sup> 이는 근대 계몽지식인의 과도한 자기 확신이 빚은 근대 구획의 실

8) 김현주, 『신체호 소설에 나타난 영웅의 변모양상 연구 -아니키즘 사상의 심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화회, 『한국어문학』제105집, 2009, 9, 313~318면. 필자는 이 논문에서 궁예의 비영웅성에 대해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였음을 밝혀둔다.

선행연구에서 궁예는 주로 민족주의와 자주의식을 이어받은 인물로 평가받았다. 최수정, 『신체호 서사문학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2003. 성현자, 『역사적 인물의 허구적 서사구조 -신체호의 <일목대왕의 철퇴>, <박상회>, <이괄>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문화회, 『비교문학21』, 1996. 양진오, 『영웅의 호출과 민족의 상상 -망명 이후 신체호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38호, 2008, 8 등.

패와 계몽적 이성 주체로서 자학적인 자기반성이다. 신채호는 궁예의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통해 이성 중심주의, 시각중심주의에 기반한 근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궁예를 일깨우는 인물은 왕후 강 씨다. 그녀는 폭력으로 백성을 다스릴 게 아니라 덕과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비록 왕후의 신분이긴 하나 미친한 과부 출신이었다. 그녀의 활약은 눈물로 궁예를 일깨우는 데서 끝나지만 앞으로 주체적이고 자각적인 민중의 출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일이승>은 서자로서의 설움 때문에 왕이 되고자 하는 16세의 소년, 정을진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총 6장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는 정을진이,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세 명의 인물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들로 진행된다.

정을진은 개인적인 한을 풀기 위해 왕 되기를 꿈꾸나 그 역시 궁예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물이다. 1장에서 ‘상상봉’에 올라 왕 되기를 비는 장면에서부터 그의 꿈은 헛된 상상에 지나지 않음이 암시되고 있다. 을진은 왕이 되고자 하나 그에게는 애초에 대의적 명분이나 사명감이 없었다.

“네가 임금이 무엇인지 아느냐?” 한대 을진이

“백성의 우에 앉아 백성을 살리고 죽이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칭호인 줄 압니다.” 함허가

“을진아, 네가 어떤 사람이 임금이 되는 줄 아느냐?” 을진이

---

9) ‘근대적 시각 체계에서의 눈은 실제로 시각 경험을 구현하는 두 개의 입체적 눈이 아니라 고정된 한쪽 눈이다. 이를 통해 보는 시선은 현상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정지시키고 대상과 분리된 특권적 지점에 위치시키는 인위적인 시선이다. 이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미리 나누고, 보는 방식을 규정하는 특정한 규칙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의 사고를 제한시켰으며, 근대과학의 방법이 획득한 권위는 이 제한된 틀 안에서만 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정희, 『근대과학에서 시각적 재현의 의미』,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제55집, 2009 · 제1권, 312면.

“만인을 거느릴 지혜와 만인을 누를 용맹이 있으면 임금질 할 만한 줄 압니다.” 함허가

“그러면 을진이 너는 그런 지혜와 용맹이 있느냐?”

을진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더니

“을진이 내가 지혜와 용맹이 있어 임금되려 함이 아니오라 다만 아까 아뢰인 말씀과 같이 을진의 품은 한을 풀려 생각한즉 평안 감사가 되어도 못 될 일이요, 령의정이 되어도 못 될 일이요, 오직 임금이나 되어야 이에 국법을 고쳐 적서의 명분을 타파하여 을진도 아버를 아버라 할 수 있삽기에 그런 생각을 함이오이다.”(80~81면)

아버지를 잃고, 적서차별 때문에 거리로 내몰린 을진의 한은 곧 망국의 한과 유사하다. 그러나 어린 을진은 울분 때문에 무모하게 감정적으로 문체에 접근함으로써 혁명적 주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매한 개인으로 남는다. 또한 을진이 만나는 각각의 스승들도 을진을 깨우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함허, 일이승, 홍경래 모두 한계를 내정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함허는 칠십 여세의 늙은 중이다.<sup>10)</sup> 이미 시대의 정신적 지주

10) 망명 이후 신채호 소설에는 승려가 종종 등장한다. 승려가 등장하는 소설은 다음과 같다.

작품명	인물
<일목대왕의 철추>	궁예(왕이 되기 전 동자승으로 지냈던 적 있음), 석총
<일이승>	함허, 일이승
<백세 노승의 미인담>	노승

이들은 모두 과도기적인 인물이다. 자기도착적인 인물이거나 세상을 등지고 피안의 세계에 머무는 인물, 쇠퇴한 불교의 표상으로 남은 인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역시 그의 소설을 민족주의 사관만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이유이다. 스님의 형상화는 신채호가 정신적 방황과 함께 현실을 타개할 다양한 방법적 모색을 시도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역사학계에서는 김정배가 신채호의 사론을 불교의 大乘起信論과 연결하여 고찰한 바 있다. 그는 신채호가 일찍이 불교에 상당한 지식이 있었으며, 1924년에는 북경의 觀音寺에서 1년여 승려로 지낸 된 적이 있었던 실증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채호의 역사관에 담겨 있는 불교적 성격을 밝혔다. 김정배, 『단체 신채호의 사론』



역할을 잃어버린 쇠퇴한 불교를 상징하는 자다. 정을진이 석왕사에 머뭇머뭇도 불구하고 부처에게 빌지 않고 밤마다 산에 올라가 “하느님께 빌었다.”(80면)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는 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따라서 늙은 함허는 정을진에게 정신적 깨우침을 주지 못하고, 일이승에게 정을진의 욕망을 책임 지운다.

두 번째, 일이승과의 만남이다. 일이승은 이름이 상징하는 바, 을진과의 소통이 부재한 인물로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나약한 지식인과 닮아 있다.

함허가 다시 가만히 을진을 불러

“일이승은 천하의 기사(奇士)이니 내가 같이 가면 너의 운명의 길이 열리리라. 그러나 너의 경계할 바는 첫째로 일이승을 년소하다 말고 꼭 선생으로 섬길 일이요, 둘째로는 일이승의 명령만 복종하여 그가 하는 대로 따라 갈 뿐이요, 그의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의 가는 길이 어테이며 그가 너에게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도모지 묻지 말지니라.”(82면)

함허는 맹목적으로 종교적인 신념을 따르듯이 일이승을 무조건 따르라 이른다. “도모지 묻지 말지니라”(82면)라고 하는 것은 곧 일이승과 정을진과의 일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귀가 하나뿐인 일이승은 을진과 창조적인 대화를 낳지 못하고, 을진은 결국 깨우침을 얻지 못한다.

일이승은 상보고 사주보는 일을 하면서도 고대 실패한 영웅들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궁예와 최영이 역사에서 홀대를 받는 이유가 “사필(史筆)잡는 자의 거짓말이요, 사실이 아니니라.”(83면)하며 역사적 계보학을 뒤집는다. 그러면서 “이 같이 문자(文字)에 홀리지 아니한 비밀인 일을 알아 내지 못하면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 못 할지니라.”(83면)며 역사를 비판적으로 사유할 것을 언급한다. 그러나

---

과 불교,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단재 신채호와 민족사관』, 형설출판사, 1980.

이러한 사론도 자기 흥이 날 때나 할 뿐, 정을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을진과 헤어지며 자신의 심정을 담은 노래를 한다.

칼로 치면 갈라를질가?

몽치로 때리면 부서를질가?

어찌하면 송두리째를 베여를 볼가?(85면)

비판적인 역사의식, 진보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이승은 근대로 향하는 과도기적 인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개혁 의지를 지니고 있는 반면 방법적 모색에 대해 고민만 할 뿐,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못한다. 현실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모색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로만 머무는 것이다. 잃어버린 한 귀는 세상에 귀를 열지 않는 그의 폐쇄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92면)으로 근대와 전근대의 경계에서 방황하다가, 함허와 마찬가지로 정을진을 홍경래에게 맡기고 표연히 사라져버린다.

세 번째, 홍경래는 일이승도 대왕으로 부를 만큼 가장 긍정적으로 그려진 인물이다. 홍경래는 정을진이 겁심(怯心) 때문에 운산 초목을 적군으로 오인하여 전투에 차질을 빚자 그의 귀를 잘라 버린다. 그래서 을진도 일이승과 같게 되었다. 이후, 정을진이 여전히 헛된 망상으로 왕 되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하자 그의 목을 친다. 혁명군으로서의 사명과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자기 분수를 깨닫지 못하는 데 대한 응징이다. 결국 민중영웅 역시 궁예와 마찬가지로 폭력으로 치닫는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홍경래는 실패하는 영웅이며, 활약상도 자세하게 묘사돼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유일하게 자각을 통해 혁명으로 나아가는 인물이며, 죽지 않고 사라짐으로써 혁명의 잠재태로 남는다.

정을진이 만난 세 명의 스승들은 다음과 같은 유기적 흐름을 갖는다.

함허(전근대적 인물)→일이승(전근대와 근대 사이의 과도기적 인물)→홍  
경래(주체적 근대 확립을 모색하는 인물)

정을진은 이들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지만 끝내 자각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다. 이들의 만남과 헤어짐은 근대에 대한 회의와 반목을 상징하는 것이다. 정을진의 이러한 애매한 상황이 일이승의 노래에 대한 정을진의 답가에 드러난다.

새가 되었으면 날아나 볼 것을  
짐승이 되었으면 뛰여를 볼 것을  
어찌하여 날도 뛰도 못 하는  
사람의 그물에 떨어를저 아.....(85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는, 비영웅적인 자신의 상황을 노래로 풀어낸 것이다. 이런 저런 만남들 속에서 해방의 길을 찾지 못하고 뛰도 날도 못하는 처지에 처했다는 것이다. 일이승을 두고 부른 노래였지만, 사람의 그물이란 이들 세 명의 스승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계를 지닌 인물들로, 정을진을 주체적인 인물로 이끌어 주지 못하고 계몽의 신화를 이반하는 탈계몽적, 비영웅적 인물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정을진은 신체적 결함뿐만 아니라 정신적 결핍을 내재한 인물이다. 특히 그의 정신적 결핍과 나약함은 ‘눈물’로 나타난다.<sup>11)</sup> 정을진의 ‘눈물’은 욕망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울분과 자기 연민에 기인한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정을진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곧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자의 욕망과, 그 욕망에 지배되는 몸이 결국 과멸해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병자호란의 명장 이봉수의 후손이나, 이름 없는 정모(鄭某)의 서자라는 그의 위치는 곧 과거의 위엄을 이어받지 못하는

11) <일이승>에 드러나는 눈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을진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그의 결함들은 주체적인 자기 확립의 근본적인 한계와 회의를 말하는 것이다.

<철마 코를 내리치다>에서는 ‘코’의 상실이 나타난다. 배당은 자기 힘을 과신하는 인물이다. 그는 마을의 계책에 속아서 코로 철마(鐵馬)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결국 그는 코에 철마를 맞고 죽는다. 배당도 궁예와 마찬가지로 철추를 잘 쓰는 인물이지만 그 힘을 과신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의 최후는 곧 자기당착에 빠진, 콧대 높은 인간에 대한 경계이다. 즉 양육강식, 육체적 싸움을 바탕으로 건설된 제국주의와 근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경계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마을은 지혜로 배당을 이긴다. 이는 현실의 모순을 타계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혜의 힘에 달려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백세 노승의 미인담>에 등장하는 노승은 백 살 가량 되는 인물이다. 노승의 나이가 상징하는 바, 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쇠한 인물이다. 노승은 오래 전, 몽고군에게 잡혀간 아내를 찾으러 길을 떠났다. 외세에 대한 향전의 의지를 가지고 길을 떠난 인물이 아니라 아내를 다시 찾고자 하는

인물	눈물 흘리는 상황	이유
정을진	땅에 엎드려져 울며 하는 말이	서자로서의 억울함, 울분
	눈물을 씻고	이야기 시작, 안정, 차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더니	지혜와 용맹 없음에 대한 자괴감
	목마친 소리로	합허에 대한 감사, 이별의 슬픔
	목을 놓고 울며	신세 한탄
	목을 놓고 울다가	신세 한탄
합허	느껴 울며	합허에 대한 감사, 슬픔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며	정을진 위로
일이승	손목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정을진과의 이별의 슬픔
	눈물을 아니 흘릴 적이 없더라	궁예, 최영에 대한 안타까움
홍경래	두 줄 눈물로	정을진, 홍경래와의 이별의 슬픔
	눈물을 흘리며	일이승과의 이별의 슬픔

<일이승>에 뿐만 아니라 망국 이후 신채호 소설에는 ‘눈물’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차후에 이와 관련한 고찰도 필요해 보인다.

애절한 마음에 젖어 고난의 길을 떠난 것이다. 귀족 집안의 자제로 교육 받은 노승이었음에도 시대적 자각이 결여되어 있다. 몽고의 침입으로 혼란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웅혼한 결의가 부재한 것이다.

노승의 부인 황 씨는 이미 몽고 장수 차손다다의 부인이 되어 노승을 잊은 채 안락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시종 엽분이는 “소녀는 얼골이나 몰라 보게 되었지만 아씨는 마음까지 몰으게 되었습니다.”(565면)라고 하며 황 씨를 찾지 말라 한다.

“아씨는 맛나 무엇을 하십니까? 이 길로 곧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고국으로 돌아가시지 안하다가는 황천으로 돌아가시리다.”

“황천으로 돌아갈지라도 아씨를 만나보고야 돌아가겠다.”

한즉 그 녀종이 한참이나 무엇을 생각하더니 당장 얼골빛치 새파래지며 노승의 수죄를 합되다.

“령감 들으시오. 산아회란 것이 무엇으로 산아회라 하압난닛가. 적국이 내 나라에 침입하면 칼 들고 활 메이고 전장에 나아가서 적병을 물니치고 개선가를 불으며 돌아오거든 그의 안해는 낮에 봄빛을 쓰고 나아가 맞게 하거나 그러치 못하면 차라리 전장에 싸우다가 죽어 바리어 울긋불긋한 피두루막이 입은 송장으로 돌아오거든 그의 안해가 눈물을 뿌리며 나아가 맞게 하는 것이 산아회의 일이 안입니까. 적국의 정복을 바더 죽도 사도 못한 몸이야 제 계집이나 빼앗기지 안하라고 김히김히 도랑 속에 가두어 노코 그 속에서 부처의 행복을 누리라 하얏스니 네가 무삼 산아회냐?”(565면)

엽분이가 황 씨를 만나 무얼 하겠느냐며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자 노승은 죽더라도 황 씨를 만나봐야겠다고 한다. 이에 엽분은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노승을 크게 꾸짖는다. 사나이가 기껏 계집을 찾으려 목숨까지 걸겠다는 데 격분한 것이다. 나라가 빼앗겨도 찾을 줄 모르면서 계집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사나이냐는 것이다. 엽분은 일곱 차례나 계속해서 “네가 무삼 산아회냐?”며, 종의 신분을 뛰어 넘어 과감히 자신의 상전

을 나무란다. 그러나 노승은 엽분이의 충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노승은 엽분의 꾸지람에도 그저 종으로서 저럴 수가 있는냐는 개인적 분노에 떨 뿐, 자신의 미각성(味覺醒)을 깨닫지 못한다. 미인의 아내를 찾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 이후, 황 씨의 배신을 절감하고는 황 씨를 죽임으로써 그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궁예처럼 폭력으로써 자기의 그릇된 욕망을 보상받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끝내 그 채워지지 못한 욕망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았다고 볼 수 있다. 백 살이 가까이 되는 노인이 되었음에도 미인의 아내를 얻었다 낭패를 보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스님된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승이 ‘만법개공(萬法皆空)의 진리를 깨달란노라고 제가 제 일흠을 오 공화상(悟空和尚)’(561면)이라고 이름 짓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세상 일을 다 섭렵했다며 자기 착각에 빠져있던 궁예 같은 인물이다. 그는 절에 들어온 지 60년이 지나 백 살 정도가 됐음에도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눈물을 두어 줄 흘으더니’(562면) 아내 빼긴 이야기를 구구절절 한다. 그의 눈물은 노승이 여전히 세속적 욕망의 부림을 당하며 사는 인물임을 말해 준다. 이는 노승이 여전히 만법개공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인물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미각성(味覺醒)은 바로 염불이나 하며 시대를 빗겨 사는 몽매한 지식인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은 엽분이가 아니라 오히려 노승이라고 볼 수 있다. 귀족의 신분이긴 하나 노승은 애육의 노예, 시대의 노예, 운명의 노예, 끝내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중이 됨으로써 부처의 노예로 사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백 살 가량 되는 그의 나이는 곧 자각하지 못한 노승의 지속적인 노예적인 삶을 상징한다.

노승과 대조되는 인물은 엽분이다. 엽분이는 출생부터 비참하였던 천민이다. 흉년이 든 어느 해, 노승의 아버가 죽은 어미의 등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데려 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엽분이였다. 엽분이는 몽고의 침입에

근심이 깊은 노승의 아버지에게 고려의 병폐에 대해 비판하면서, 현실을 타개할 방책으로써 우선 신분제를 철폐하고 공민 세우면 노예에게도 높은 벼슬을 줄 것, 들째, 귀인의 토지를 뺏어 백성에게 나누어 줄 것, 셋째, 해군을 부흥하여 바다를 건너 중국의 남방으로 들어가 송(宋)나라의 후예를 세워 몽고를 쫓을 것, 넷째, 여진과 함께 몽고를 쳐 북방을 경영할 것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정에 천거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녀는 국제적 감각과 내부 분열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진 비범한 인물이다. 국정을 자기에게 맡기라는 당돌한 엽분의 태도는 개인적인 울분으로 왕이 되겠다며 눈물로 인생을 소모하는 정을진이나 일목대왕 궁예 및 여타의 결합적 비영웅들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 그녀는 타당한 시대적 안목과 논리로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엽분의 이러한 남다른 의식은 배움에서 온 것이었다. 노승의 아버지가 엽분의 총명함을 사랑하여 노승과 같이 한 등잔 밑에서 글을 읽게 하였다. 그녀의 과감하고 결연한 태도는 ‘배움’에서 온 자기 믿음과 확신으로서, 그녀가 무지한 민중이 아니라 자각한 민중적 지식인의 전형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그녀는 열정만으로 무모한 혁명을 감행하는 여타의 민중영웅과도 차별화된다.

그러나, 노승의 아버지는 엽분을 사랑하긴 하나 천민이라는 그녀의 태생적 한계와 여자라는 신분적 한계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그녀를 인재로 키우겠다는 원대한 포부보다는 그녀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하는 데에서 멈춘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엽분을 며느리로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노승의 아버지는 엽분을 항상 녀개소문(女蓋蘇文)이라 일컫어야 엽분이 만일 남의 집이나 나라를 맞으면 아조 흥망의 판단을 낼 게집아이라 하시며 노승의 어머니는 더욱 실어하야 어대서 온 싸인지도 몰으며 엇지 나의 아들과 싸

을 삼으리오 하여 괴쓰고 반대하며 로승아버의 친구들도 그 말을 뜻도는 놀래  
여(574면)

아무리 엽분을 사랑하는 노승의 아버였지만 결국 그녀를, 나라 흥망을  
판단 낼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노승의 어머니 역시 그녀가 비천한 신분이  
기 때문에 아들과 짝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엽분의 시대적 안목  
은 봉건적 질서 속에서 무화돼 버리고 만다.

엽분을 대하는 노승의 태도 역시 봉건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엽  
분이 노승을 탈출케 하고 자살을 선택하자 노승은 이렇게 말한다.

오나 당초에 잘못이다. 엽분과 부처 되얏더면 내가 이 디경이 되얏겟느냐?  
이번에는 돌아가 문벌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아조 집어바리고 엽분을 정실  
을 삼아 다리고 살으리라. 하얏습니다..... 엽분이도 그런 눈치를 의례히 채울  
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싹타고 자살하고 말얏습니다.(574면)

노승은 엽분의 대담한 도움을 통해 자각적 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인의 아내에게 배신당한 후에 엽분을 아내로 삼아 살겠다는, 자기 욕심  
을 채우는 데 머문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엽분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가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녀가 여자이며 노예인 이  
상, 현실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이 서사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끝  
남으로써 시대적 한계와 모순은 극대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녀  
의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준비하는 상징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2)</sup> 노승이 차손다다와 황 씨를 죽이고 달아날 때, ‘한 사람도 다라

12) 양진오는 ‘예쁜이(엽분)의 실패는 그 내부에 진정한 혁명의 아우라를 내포하고 있다. 예쁜이는 자신의 전 존재를 역사의 전망에 투기한 민중영웅이다.’고 하였다. 양진오, 앞의 논문, 190면.



나기가 어려운데 엇지 두 사람이 갖히 갈닛가'(571면)하며 죽음을 선택한다. 이는 곧 노승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이다. 시대적 사명감 없이, 애육에 눈이 멀어 먼 길까지 온 노승에 대한 항거이다. 자살은 엽분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주체 찾기 방식이다. 또한 자신의 태생적인 신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자 정신적으로 노예의 삶에 빠진 노승에 대한 경고이다. 따라서 그녀의 죽음은 왕이 되겠다는 무모한 꿈을 꾸다 죽임을 당하는 정을진의 죽음과 다르다. 그녀의 죽음은 현실에 대한 마지막 저항으로 곧 민중영웅의 탄생을 예고하는 혁명적 씨앗으로 남기 때문이다. 그녀의 결함과 비극적 죽음은 민중들의 저항적 에너지로 전화될 수 있는 전복성을 잠재한 것으로써 민중영웅에 대한 신채호의 기대를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

궁예, 노승, 정을진, 배당의 공통점은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sup>13)</sup> 궁예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노승은 백 살이 먹도록 욕망이 좌절된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정을진은 왕이 되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었고, 배당은 자기 힘을 과신한다. 이들은 인간은 근원적으로 결핍을 내재한 인물들로 그 누구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그 욕망 때문에 파멸에 이르고 만다. 이들의 눈, 귀, 코 등의 신체적 결함과 폭력, 눈물, 자기 과신 등으로 점철된 정신적 결핍과 몰락은 곧 신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한 이성적 인

13) 자기 과신에 빠진 이들 인물들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과 그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작품명	인물	신체 결손 (사유)	정신적 결핍	결과
<一目大王의 鐵椎>	궁예	눈 상실 (심술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고, 유모의 손가락에 찔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소문도 있음)	폭력적, 자기 착각	폭력 왕으로 남음
<百歲 老僧의 美人談>	노승	백세의 나이	폭력적, 원망	자각하지 못하는 노승으로 남음
<일이승>	일이승	귀 상실 (알 수 없음)	현실감 없음	표연히 사라짐
	정을진	귀 상실 (怯心)	겁심(怯心), 나약함, 자기 분수를 모름	죽임 당함
<철마 코를 내리치다>	배당	코 훼손 (자기 힘에 대한 과신)	자기 힘 과신, 어리석음	죽음

간들의 자의적이고 폭력적 시선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계몽의 신화에 대한 균열 시도하는 것이다. 신채호는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결합을 지닌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근대적 주체들의 병폐를 보여주며 진정한 근대 주체 확립을 위한 소설적 모색과 반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왕후 강 씨와 엽분이, 홍경래와 마을은 민중의 역량에 대한 신채호의 기대에서 재현된 인물들이다. 이들의 삶은 실패와 죽음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재생을 위한 혁명적 삶의 투쟁 의지를 강화하는, 민중영웅들의 감정적 에너지로 전회될 잠재태가 되고 있다. 이는 민중영웅들의 적극적인 주체화 모색이다.

결론적으로 궁예↔왕후 강 씨, 노승↔엽분, 정을진↔홍경래, 배당↔마을로 대립되는 이러한 비영웅과 민중영웅들의 반목들은 식민지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계몽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본질적 물음을 제기하며, 역사적 진실이 온전히 구성되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을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되고 있다. 이것은 근대계몽지식인들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주체화 모색에 다름 아니다.

### 3. 괴물의 탄생과 주체의 이중화

<용과 용의 대격전>은 신채호의 마지막 소설이다. 이 소설에 이르면 근대 주체에 대한 비판과 해체, 그리고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 예고된다. 그것은 ‘미리’와 ‘드래곤’이라는, 대립적인 두 괴물을 통해 형상화된다.

전통적으로 용은 신성한 절대 권위를 상징한다. 이러한 신성성은 용이 승천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나 미리는 오히려 아래로 하강하는 인물이다.<sup>14)</sup> ‘나리신다, 나리신다, 미리(龍)님이 나리신다. 新年이 왔다고, 新年

14) 이 점에 있어서 궁예와 공통적이다. 궁예는 “나는 사람의 탈을 쓰고 하늘에서 내려온

戊辰이 왔다고, 미리님이 東方 亞細亞에 나리신다.’(603면) 이는 곧 미리가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처럼 권위를 획득하지 못한, 해악적인 인물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리는 진정한 용으로 승천하지 못하고 땅과 하늘 사이를 오가는 괴물 같은 존재인 것이다.

미리가 내려오자 부자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며 기뻐하는 반면, 일반 빈민들은 엎어져 울면서 미리에게 고통을 덜어달라고 빈다.

“님이시여, 미리님이시오. 今年에는 稅納이나 만히 안 물니도록 하여 주옵소서. 今年에는 賭租나 만히 안 달나게 하여 주옵소서. 今年에는 監獄구경이나 안케 하여 주옵소서. 今年에는 生活難의 鐵道自殺이나 안케 하여 주옵소서. 今年에는 他國 他鄉의 別營거지나 안되게 하여 주옵소서. 今年에는 이 興旺하게 하여 주옵소서.”(603면)

빈민들은 세납과 도조에 허덕이며, 생활난 때문에 철도자살까지 하는 비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철도로 상징되는 근대의 날카로운 속도의 찢겨짐 속에서 빈민들의 신산한 삶이 산화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미리의 귀에는 이런 울부짖음은 들리지도 않는다. 미리는 부자와 권력자들의 우상으로서 그들만의 미리인 것이다.

미리의 입에서는 초란이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들은 폭력적인 권력자, 종교가 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리는 부정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리는 인간들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다. 미리는 자연에서 잉태된 조화로운 유기체가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구성체이다. 즉 미리는 인간 사회에서 진정한 괴물로 창조된 것이다. 미리는 천사에게 ‘其實 내나 네나 上帝가 모다 上古 民衆의 一時 迷信의 造作이 아이였더냐.’(618면)한다. 상제나 모두 ‘민중의 일시 미신의 조작’이라고 스

---

「미리」다.”(595면)라고 한다. 그 역시 미륵보살이 아니라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괴물적인 인물이다.

스로 폭로하고 있다. 즉 미리적 사회는 민중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다. 조화로운 사회가 아니라 억압과 폭력, 은폐와 조작으로 이루어진 작위적인 세계인 것이다. 그 속에서 인간들은 기계적으로 억압하고 복종하는, 강제된 통일성으로 움직인다. 미리는 상제도 멸망해야 옳다고 하며 스스로 자기 모순을 폭로, 근대의 몰락과 재앙을 이야기한다.

미리는 근대 질서 속에서 근대적 인간들에 의해 진정한 괴물로 태어났다. 인간 허상이 만들어낸 공허한 가치와 질서에 대한 비판은 바로 괴물을 만들어낸 인간 자체가 곧 괴물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리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결국 그의 폭력성은 인간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혐오스러운 결과만을 얻는다. 미리는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근대 사회의 비극적 결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영웅 창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이며, 인간의 재현 신화에 대한 비판이다. 말하자면 이는 이성에 기반하여 인간과 사회를 구획했던 근대에 대한 비판이며, 질서 있는 근대가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를 낳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리의 괴물성은 지식의 괴물성, 혁명의 괴물성, 근대 구획의 괴물성, 제국주의와 약육강식 세계의 괴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리와 대조적인 인물이 ‘드래곤’이다. 새로운 영웅 드래곤은 ‘왔다, 왔다, 드래곤이 왔다.’라고 말해진다. ‘나리시고, 오시는’ 존칭의 대상이 아니라 ‘온’ 것이다. ‘이는 수평적인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암시하는 언표이다.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미리와 달리 평등하고 광범위한 민중적 연대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이 드래곤의 출현이다. 드래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곧 수평적인 일반 민중, 시혜와 수혜의 관계가 아닌 ‘상호부조’적 관계임을 암시하는 것이다.’<sup>15)</sup> 그러나 드래곤은 ‘出處가 不明한 怪物’ (608면)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드래곤은 숫자 ‘0’으로 나타날 뿐이다. ‘드래곤의 ‘0,’

15) 김현주, 앞의 논문, 323면.

은 총도, 칼도, 불도, 벼락도, 其他 모든 『테로』가 될 수 있다.’(610면) ‘드래곤은 모든 지배세력을 타개할 수 있는 잠재태인 셈이다. 허무가 그렇듯이 ‘0’은 모든 가능성의 원천이다. 이는 드래곤이 무엇도 아닐 수도 있고 무엇도 될 수 있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실체임을 암시한다.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의 세계 형상, 영웅상을 지워버리고 근원적인 존재의 물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sup>16)</sup> 더 이상 바깥의 대상을 표상하지 않음으로써 근대의 재현적 인식론에 공격을 시도한다.

미리가 말로써 민중을 지배하는 데 반해 드래곤은 침묵한다. 어디에도 드래곤의 ‘언어’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드래곤의 비가시성과 침묵은 드래곤의 전복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정치성을 내포한다. 보이지 않고 음성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두려움과 공포, 한편으로는 새로운 혁명적 잠재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드래곤의 활약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리는 파멸해 간다. 미리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실체가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을 주시하던 드래곤의 시선 때문이다. 즉 드래곤의 형상은 가시화된 질서와 이성을 의심하게 하는 위반의 성격을 갖는다. 드래곤의 형상에 드러나는 재현에 대한 거부와 침묵이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리와 드래곤은 상반된 영웅들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미리와 드래곤은 ‘同生異性’(609면)인 한 형제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一胎雙生の怪物’(610면)로 미리는 동양의 용이 되고, 드래곤은 서양의 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미리와 드래곤은 분신관계에 있는 인물들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도 용은 양성(兩性)적인 동물이다. 용은 ‘음양오행의 원리를 따른다. 음양(陰陽)은 하나인 동시에 둘이고 곧 하나인 조화의 상태를 말하며, 용은 음양조화의 관념물이다.’ ‘특히 용은 두 마리가 있을 때

16) 위의 논문, 326~327면.

그 개성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서로를 보완해주므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교호를 의미한다.<sup>17)</sup> 이들은 상호교차가 가능한 대립보충적 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점에서 쌍룡은 지금까지 형상화되었던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의 혼합체라고도 할 수 있다.

미리가 드래곤이고 드래곤이 미리이다. 여성이자 남성이고, 동양이자 서양이며, 我이자 非我, 선이며 악이다. 이러한 주체의 이중화는 재현에 대한 거부를 심화하는 전략이 된다. 미리와 드래곤은 대립적인 인물상으로 드러나지만 이들의 대립은 전혀 다른 두 인물들이 대립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 관계<sup>18)</sup>를 형성하여 중층적인 구성과 의미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원초적인 양면성, 이중적인 내면에 대한 주시이다. 인간의 양면성은 각기 다른 인물들로 형상화되어 대립함으로써 중층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분법적으로 미리를 부정적인 인물로, 드래곤을 긍정적 인물로 구분하기가 애매해진다. ‘괴물은 선·악, 정상·비정상의 체계가 양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 안에 악이, 그리고 정상성 안에 비정상성이 들어와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대립항들은 그 자체로써 완전하고 고유한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에 의해서만 존립가능하다.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괴물은 결국 선·악과 같은 이분법적 구조를 와해시킨다.’<sup>19)</sup>

미리는 말하는 괴물이라는 점에서 드래곤과 마찬가지로 전복성을 내포한다. 미리가 ‘인간들의 조작’으로 자신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미리의 말은 곧 자신의 추악함은 인간의 것임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면서 강력한 전복

17) 김영진, 『현대 시각문화에서의 신화적 상징차용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용(龍)포스터를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3, 93면, 90면.

18) 한순미는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주체의 이중화 전략을 다루면서 두 인물의 이러한 관계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닮아 있는 ‘짝패(double)관계’라 하였다. 한순미, 『가의 언어, 이청준 문학연구』, 푸른사상, 2009, 250면.

19) 권선희, 『괴물성의 정치학 -『프랑켄슈타인』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8, 1면.

행위가 된다. 또 ‘多數한 0’(610면)으로 표시되는 드래곤의 형상은 인간의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드래곤의 등장이 민중을 구원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충족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주체화 확립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는 상징적 기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의 이중화로 미리와 드래곤의 괴물성은 선과 악, 어느 쪽에도 완전히 흡수되거나 통합되지 않는다. 이는 어느 한 인물이 절대적인 선을 재현할 수는 없다는, 재현에 대한 회의와 거부 전략으로 심화한다. 그러면서도 이 쌍룡은 ‘태극 패턴의 운용’<sup>20)</sup>을 보여준다. 즉 동양의 미리와 서양의 드래곤이라는 설정은 동양과 서양의 결합과 세계주의의 조화로움을 희구하는 상징적 형상이 된다. 이 둘은 서로의 결합으로 완전해 지는 것이다. 이 둘의 파괴성과 전복성은 조화와 교류를 통해 합일에 도달하려는 혁명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신채호는 이전과 달리 마지막 소설에서 두 마리 용리는 알레고리를 통해 새로운 인물 형상을 시도하였다. ‘미리’와 ‘드래곤’이라는 주체의 이중화에 담긴 복합적인 함의들은 곧 근대 재현에 대한 회의와 비판, 재현의 변주를 말하는 것이다. 아울러 작가의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망명 이후부터 지속되는 미완의 작품들의 형식적, 통일성 위반 역시 근대적 질서와 합리를 거부한 탈근대적 문학적 모색이라는 주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근대에서 탈근대 이행(移行)과 관련하여 망명 이후 신채호 소설의 인물 형상화를 살펴보았다. 강인한 민족영웅이 형상화되었던 역사전기소설과 달리 1910년대의 신채호 소설에서는 결합적인 비(非)영웅

20) 김영진, 앞의 논문, 50면.

들과 자각한 민중영웅들이 형상화되고 있었다. 신채호는 신체적, 정신적 결합을 지닌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근대적 주체들의 병폐를 보여주며 진정한 근대 주체 확립을 위한 소설적 모색과 반목을 보여준다. 이들의 눈, 귀, 코 등의 신체적 결합과 폭력, 눈물, 자기 과신 등으로 점철된 정신적 결핍은 곧 신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한 이성적 인간들의 획일적인 폭력적 시선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는 근대의 원근법적 시각에 대한 회의를 바탕으로 계몽의 신화에 대해 균열을 시도하는 것이다. 민중영웅들의 삶은 주로 실패와 죽음으로 마무리되지만 이는 재생을 위한 혁명적이고 투쟁적인 삶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이들 비영웅들과 민중영웅들의 반목들은 식민지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계몽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본질적 물음을 제기하며, 역사적 진실이 온전히 구성되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을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되고 있었다. 이것은 근대계몽지식인들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주체화 모색에 다름 아니다.

이후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는 양성(兩性)동물인 용, ‘同生異性’인 미리와 드래곤이라는 대립적인 괴물을 통해 주체의 이중화를 실현한다. 이러한 주체의 이중화는 어느 한 인물이 절대적인 선을 재현할 수는 없다는, 재현에 대한 회의와 거부 전략으로 심화된다. 이는 근대의 합리주의를 거부하면서 탈근대적 문학적 모색이라는 주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동양의 미리와 서양의 드래곤이라는 설정을 통해 동양과 서양, 남성과 여성이라는 세계주의와 음양의 조화로우움을 회구한다. 따라서 미리와 드래곤의 파괴성과 전복성은 조화와 교류를 통해 합일에 도달하려는 혁명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신채호의 소설은 근대기획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하여, 망명 직후에는 근대에 대한 회의와 반목을 드러내다가 마지막 소설에서는 탈근대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문·사·철을 뛰어넘는, 작가의 근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에서 빚어진 문학적 성찰들이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단체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체신채호전집 제1~9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8.

### 2. 논문

권선희, 「괴물성의 정치학 -『프랑켄슈타인』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8, 1면.

김영진, 「현대 시각문화에서의 신화적 상징차용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용(龍)포스터를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3, 50면, 90면, 93면.

김정배, 「단체 신채호의 사론과 불교」, 단체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단체 신채호와 민족사관』, 형설출판사, 1980.

김주현, 「신채호 문학연구」, 수원대 국어국문학회, 『기전어문학』10·11, 1996.

김현주, 「신채호 소설에 나타난 영웅의 변모양상 연구 -아나키즘 사상의 심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회, 『한국어문학』제105집, 2009, 9, 313~318면, 323면, 326~327면.

나병철, 「애국계몽기의 민족의식과 탈식민주의」,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기전어문학』제12·13집, 2000, 3.

박중렬, 「한국 근대전환기소설의 근대성과 계몽담론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0.

서은선·윤일·남송우·손동주, 「신채호 아나키즘의 문학적 형상화 -하늘(天)과 용(龍) 이미지의 전도(顛倒)-」, 한국문학회, 『한국문학논총』제48집, 2008, 4.

성현자, 「역사적 인물의 허구적 서사구조 -신채호의 <일목대왕의 철퇴>, <박상희>, <이팔>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문학회, 『비교문학21』, 1996.

신춘자, 「신채호의 소설연구II -<용과 용의 대격전>을 중심으로-」, 성결교신학교, 『논문집』제15집, 1986, 12.

양진오, 「영웅의 호출과 민족의 상상 -망명 이후 신채호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38호, 2008, 8, 190면.

오선민, 「20세기 초 역사전기 소설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윤경희, 「19세기 고딕 소설 연구 -괴물성, 공포, 지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정희, 『근대과학에서 시각적 재현의 의미』, 새한철학회, 『철학논총』제55집, 2009 · 제1권, 312면.
- 이혜진, 『괴물성으로 중첩되는 근대적인 더블'들':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새한영 어영문학회, 『새한영어영문학』제50권 4호, 2008, 겨울.
- 임재인,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가정성과 괴물성』,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8.
- 조미정, 『『프랑켄슈타인』과 타자성 -페미니즘, 정신분석, 마르크스주의 비평-』, 숙명 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 채진홍, 『신채호 소설에 나타난 근대인관』,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언어문학』제55집, 2005, 10.
- 최성실, 『한국현대소설의 아나키즘적 특성 연구 -<용과 용의 대결전>, <원형의 전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제17집, 2005, 6.
- 최수정, 『신채호 서사문학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3.
- 최옥산, 『“신국민”만들기와 문학 -신채호와 양계초의 국민성 탐구-』, 인하대 한국학 연구소, 『한국학연구』제13집, 2004.
- \_\_\_\_\_, 『문학자 단재 신채호론』,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3. 169~184면.

### 3. 단행본

- 권성우, 『모더니티와 타자의 현상학』, 솔, 1999.
- 권영민, 『한국민족문학론 연구』, 민음사, 1995.
- 김동춘, 『근대의 그늘』, 당대, 2002.
- 김병민, 『신채호 문학연구』, 아침, 1989.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 나병철,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문예출판사, 1996.
-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 이승원 · 오선민 · 정여울,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3.
- 진중권, 『현대미학강의』, 아트북스, 2009.
- 한순미, 『가의 언어 이청준 문학연구』, 푸른사상, 2009, 250면.
- 마틴 제이, 『모더니티와 시각의 헤게모니』, 정성철 역, 시각과 언어, 2004.
- 앙드레 슈미트, 『제국 그 사이의 한국』, 정여울 역, 휴머니스트, 2007, 178면, 430면.
- 할 포스터, 『시각과 시각성』, 최연희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4.

<b>Abstract</b>
-----------------

## Character Types in the Novel of Shin Chaeho, after His Exile

- On the Changeover from the Modern to Postmodern -

Kim, Hyun-Ju

This thesis is on the characterization of the novel of Shin Chaeho after his exile, about the changeover from the modern to postmodern. In his novels in 1910's, differently from history biography novel, in which strong heroes were characterized, people are characterized who realized themselves and groping to be new subject, and non-heroes are characterized with deficiency of mind only with their over-self-belief, tear, violence, and physical deficiency such as eyes, ear, nose, etc. Hostility and confliction between these are meaning the groping of new subject and self-reflection of the enlightening intelligence, doubt and hostility.

Later, in the *The fierce strife between two dragons*, the subject is duplicated through confronting monsters, such as Miri and Dragon who are hetero gender siblings. Both monsters are duplicated existence which are not returning to dichotomy system such as the good and the evil, but are passing over the boundary. This duplication of subject is deepening with doubt and reject strategy for reappearance, believing that no one can reappear the absolute good. But, through the setting of eastern Miri and western Dragon, it accomplishes symbolized figure which pursues unification of the east and the west and cosmopolitan harmony. Destructivity and overthrowing of these two implies revolution to get to the unification through exchange and harmony. The duplication of the subject contributes to the strengthening of the postmodern literary groping. It means that it is showing his agony and reflection for the modern.

Key- Words : non-hero, people hero, monster, duplication of subject, modern, postmodern

김현주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770-758) 경북 영천시 야사동 청구아파트 105동 1802호

전화번호 : 010-8530-7556

전자우편 : badalove2001@hanmail.net

이 논문은 2010년 4월 29일 투고되어  
2010년 6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6월 17일 게재 확정됨.